大邱日報 2006년 08월 29일 003면

"대구경북 팍팍 밀어드립니다"

이강철 특보, 예산지원 우선순위 공개

청와대 이강철 정무특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4기 출범이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한 지역 주요현안과 국비지원요청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기획예산처와 협의에서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우선순위 선정내역을 공개했다.

이 특보는 대구의 경우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유치(8~9월 선정기준 완료후 지자체 공모)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지원(9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선정) △대구전시컨벤션센터 확장 지원('08년 반영)을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정했다. 내년 국비예산으로는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현재 반영된 94억 원에서 증액) △대구성서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지원(신규, 10억 원 설계비 반영) △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재 78억 원에서 증액)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현재 43억 원에서 증액) 건설 순이다.

경북은 내년 국비예산 사업 △상주~안동~영덕(동서6축)간 고속도로 건설(미반영에서 기본설계비 100억 원 지원요망) △중부내륙(김천~현풍) 고속도로 건설(현재 1천940억 원에서 증액) △포항~울진간(국도 7호선) 국도 4차로 확장(현571억 원에서 증액)을 정했다.

이 특보는 이날 "지난 7월18일 시도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요청받은 내용을 경제구조 혁신과 낙후지역 지원, 대구경북상생협력, 경기부양효과 및 민원 해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